골목길

정 해 옥
청명종합엔지니어링 회장
papaenergy@naver.com

골목길은 꼬불꼬불해야 운치가 있다 길 끝에는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야 한다 모르는 척 속내를 은근히 숨기면서, 그 정도 비밀은 가지고 있어야 골목길이다 걸을 맛이 난다

퍽이나 좁아야하고, 돌담이나 흙담도 좋다 돌과 흙으로 시루떡처럼 층층이 쌓아올려도 좋다 면상은 화장한 얼굴처럼 매끈하지 않아야 한다 군데군데가 울퉁불퉁, 올록볼록, 돌맹이 한두 개쯤은 빠져도 좋다 그런 게 골목길이다 살짝 못 생겨야 멋이 난다

큰 돌 작은 돌이 사이좋게 놓여야 정겹다 작은 돌은 큰 돌을 받쳐주고, 큰 돌은 작은 돌을 안아주어야 한다 처럼 크고 작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한데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아야 하고, 끊이지 않는 노래 속에 우는 소리가 간간이 섞여야 한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흙과 돌과 바람과 구름과 하늘과 별과 시와 꿈과 희망이 꽃피어야 한다 이쪽 모퉁이에는 새순이 돋고, 저쪽 모퉁이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모두모두 열매 맺어야 한다

그리하여 늙은 호박 몇 개쯤은 담장위에 걸터앉아 골목길에서 노는 아이들을 듬직한 거목처럼 내려다보아야 한다 담쟁이는 담장에 붙어 서서 바람이 웃길 때마다 자지러지게 춤을 추어야 하고, 그 사이로 조롱박과 수세미가 듬성듬성 매달려 있어야 한다

담장 안쪽에서 자란 감나무가 골목길이 궁금한지 팔 하나를 내밀어 소식을 듣다가 빨간 홍시 몇 개를 던져주면 주워 먹고,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자란다

다 자란 아이들은 큰길이 되고, 어딘가로 갔다가 빈 몸으로 돌아오면 다시 골목길이 된다 골목길 끝에 큰길, 큰길 끝에 다시 골목길, 길은 길을 이탈하지 못하고 꼬리를 물고 돌고 돌아 길 끝에서 다시 만난다

골목길에는 도시로 떠난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손때 묻은 시간이 고스란히 놓여있다 그때 그 골목길은 어느 날 슬며시 어른들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 들어와 앉는다 이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골목길이여!

내가 가본 여러 나라의 골목길이 생각난다 유럽 여행길에 이태리 베니스의 곤돌라가 떠다니는 운하 길, 위험스럽고 멋져 보이기도 한 뒷골목 뱃길, 그를

보러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외화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로마에는 골목길이 많다 큰 골목길에서 간단한 기념품이나 장신구를 살 수 있어서 편리했다 로마 베스비오 화산 유적지에서 본 돌 포석이 깔린 옛날 로마인들이 다녔던 좁은 골목길,

로마의 지하 묘지인 동시에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야만 했던 기독교인들의 피신처였던 카타콤베의 어둡고 음침한 지하 묘지의 꼬부라진 골목길, 어두컴컴하고 두렵기조차 한 그 지하에서 빠져나왔을 때 유난히도 밝은 태양이 빛나던 지상의 로마도 인상적이었다

터키 이스탄불의 세계적인 카펫시장 골목길, 한 장의 카펫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잘 되지 않은 한국어로 제가끔 "형님 형님" 하며 외쳐대던 터키 상인들,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길, 수많은 관광객들이 기념품을 사려고 북적대던 그 골목길

스페인에서는 현존하는 옛 건물 사이로 지금도 사람들이 오가는 길, 요리조리 구불구불한 돌 포석이 깔린 골목길, 아직도 그 골목길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금세공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스페인의 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얼마 전 TV에서 대만의 비좁은 골목길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모택동 공산당 정부에 패해 대만으로 퇴각했다 그때 작은 섬에 모여든 피난민을 위해 밀집해서 건물을 짓느라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역사를 담은 현장이 흥미로웠다

이용분의 수필「골목길 이야기」에서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두 길을 다 가 볼 수 없기에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 (중략).....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 시대의 가장 순수한 고전적인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가 농장에서 20대 중반에 쓴「걸어 보지 못한 길」이다 삶에는 길이 많다 그 많은 길을 단 한 번의 소풍으로 다 가 볼 수 없다는 일상적인 언어로 삶의 진정성을 노래한 시다

골목길 접어들 때엔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문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면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 하네

엄인호 작사, 작곡, 신촌블루스가 부른 '골목길 '이란 노래다 한집에 유선전화가 겨우 한 대씩 있던 1970년대는 이성 친구와의 연락수단이 궁했다 어른들에게 들킬라 집 전화는 엄두도 못 냈던 시절, 너에게로 갔다가 나에게로 오는 편지 속에 사랑은 골목길처럼 자라고, 약속장소에서 만나는데 두 주나 걸렸다 정히 보고 싶으면 집으로 찾아가야 했다

어둑어둑한 저녁 시간에 여자 친구가 사는 집 골목길에 들어설 때엔 정말이지 노래가사처럼 가슴이 뛰었다 커튼이 드리워진 그 애의 창문에 조그만 돌을 던져 신호를 보내야 만날 수 있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설레었던지, 조마조마했던지, 노래가사처럼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을 태웠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후회를 했다

낮에 아이들이 흥건히 놀다간 골목길, 밤에는 남녀들이 사랑을 나누는 열애장소였다 그리고 골목길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무시로 내어주었고, 마구 뛰는 가슴을 꼭 안아주는 엄마였다

골목길은 의리가 있다 입이 무겁다 구불구불 몸을 구부려 길 밖으로 소문을 내지 않는 것으로 비밀을 보장해 주었다 고마운 그 골목길은 지금도 우리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까?

골목길은 길 끝에서 다시 큰길로 이어진다 그 많은 길들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 곁에 있는 길인지, 아니면 꿈속에서만 있는 길인지,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길이란 걸어봐야 안다는 걸 이제 겨우 알았다

삶이란 아직 가보지 않은 길들로 가득하다 그 많은 길들을 등에 메고 가는 과정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길들이 점점 줄어든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인생살이가 어디 탄탄대로에 매끈한 길만 있겠는가 구부러져 미리 볼 수 없는 골목길처럼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로다

아직 양다리가 성성하다는 것은 걸어야 할 길들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그 만큼 남아 있다는 거다 그러나 세월의 언덕을 거슬러 길을 오르다 보면 마음속에 궁금했던, 아직 가보지 않은 길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된다 생각이 정리 된다 그래서 골목길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꿈과 희망과 교훈을 준다